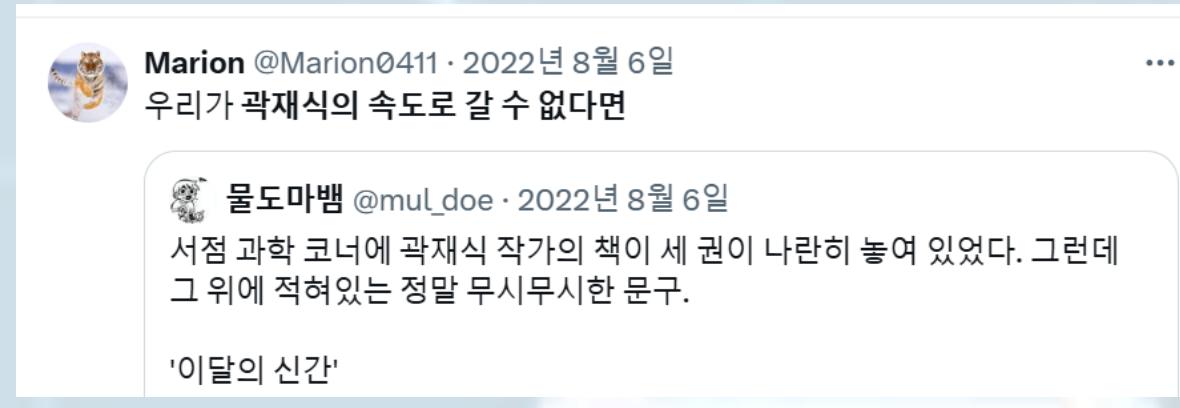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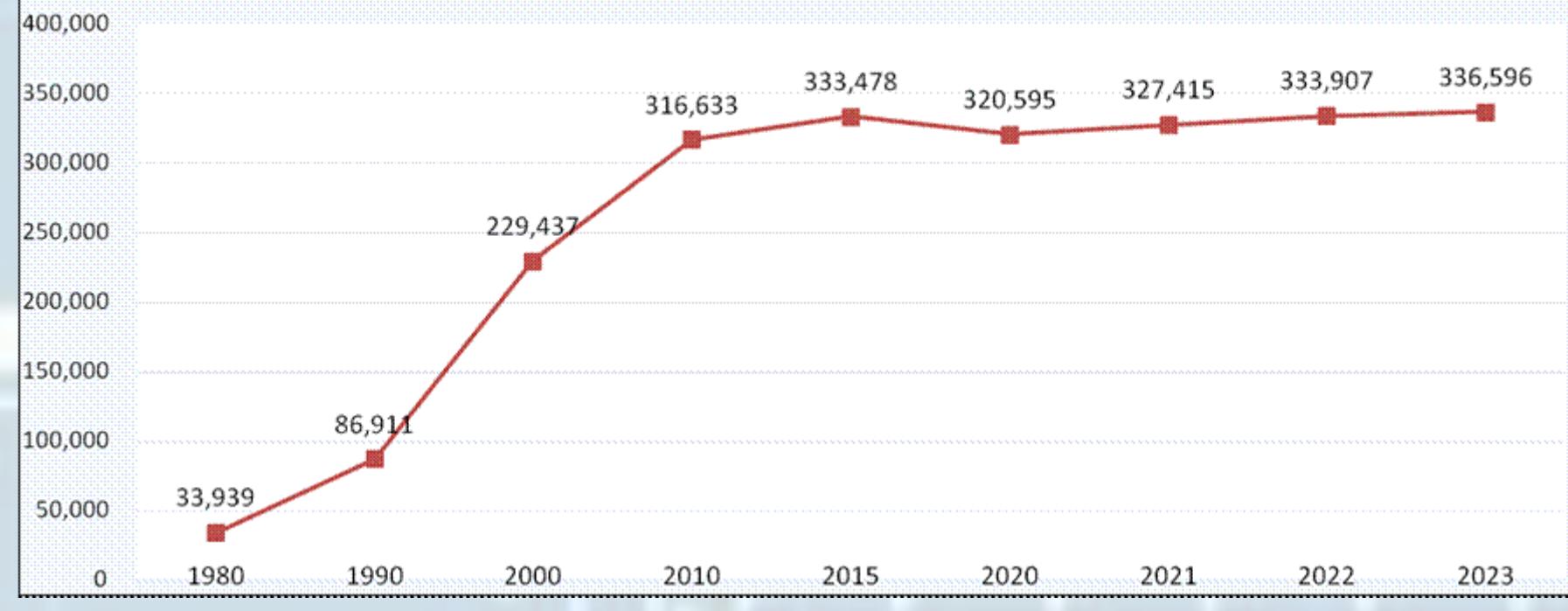


사이보그 연구자는 노동자의 꿈을 꾸는가 -우리가 과재식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강아람(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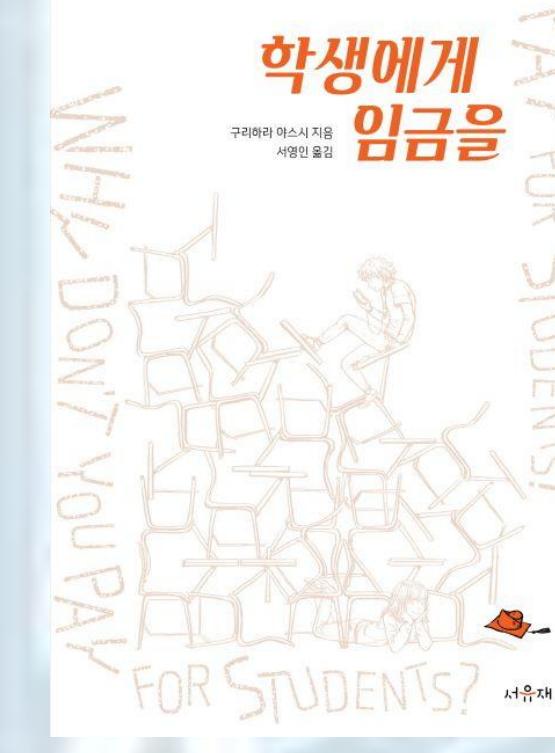
1. 너무 많은 연구자들



(대학원생 수 추이)
(<http://www.gradmap.co.kr/grad/html/data01.htm>)

-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증가 상황
- 비정규직 연구자 = “이중 의미에서 노동자”
- 연구자의 일
교환가치로 환산되는 노동
그 외 노동

】 과노동



2. 노동자인 연구자

- 학문종사자의 인생경로 = 금권주의적
-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인 연구자는 대학 교육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불가결한 존재
- 비정규직 연구자는 “과도하게 노동”하기를 강요받음
- “제3차산업 중심인 유연한 노동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노동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즉 교환 가치는 없지만 필요하거나 권장할 만한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250)
- 비물질 노동과 물질 노동, 그 외의 노동들까지 해야 하는 비정규직 연구자 (새벽에 도착한 학회 간사의 답례일...)
-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노동 시간의 절약 => 노동 생산성의 향상=> 여가 시간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
- 기계보다 못한,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은 인간
- 대체할 수 없는 기계와 대체 가능한 인간들

나는 기계가 아니다.

집이 비는 주말이면 나는 가게에서 소주를 사다 한 병씩 마시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중얼거린 다음에는 차라리 기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란 건 웃기고 요망한 덩어리라 음식물처럼 혼자만의 시간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우아를 떨어댔다.”(윤이형, 「대니」)

3. 자리 없는 존재들

- SF에서 등장하는 노동 문제
(예: 윤이형 「대니」, 천선란 「이끼숲」)
- SF의 연구자 = 진리의 탐구자(?)
- 정보라 연작소설 『지구 생물체는 행복하라』의 연구자
= 비정규직 연구자이자 노동자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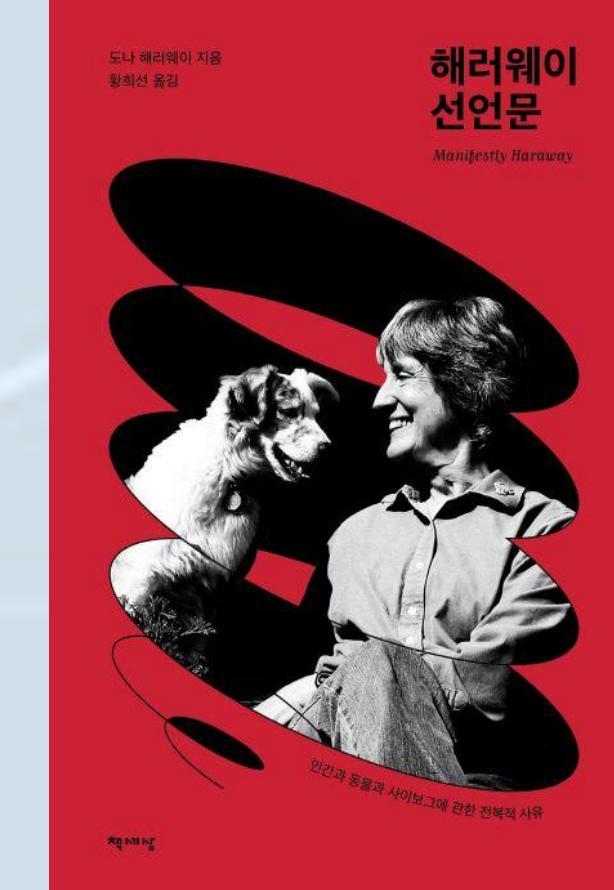
대학들은 강사를 더 잘랐고 교양 과목을 더 줄였고 분회 사무실을 빼앗았고 강사실을 폐쇄했다.(중략)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런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책임과 희생을 만만한 강사와 학생 측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중략)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학교 측은 수업을 폐강하고 남은 수업의 수강 인원을 최대한 늘리고 강사를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정보라, 「문어」)

- 비정규직 연구자 & 공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는 외계 사이보그 대개 🦀의 만남과 조직화의 불가능성

“인간도 아닌데 대개가 노동조합을 조직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그 권리나 요구를 존중할 것 같습니까?”
(중략)
(노동하는 존재의 권리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위치 추적 장치를 떼고 도망가요, 예브게니.)
(중략)
(권력기관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닌 생물도 똑같이 이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정보라, 「대개」)

4. 결론

-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계를 그리는 SF의 계보
- 사이보그의 세계의 두 가지 면을 보는 것
이 정치투쟁으로 연결될 구체적 방법
- 노동자들의 소외,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탐구 필요



참고문헌

https://x.com/mul_doe

<https://x.com/Marion0411>

윤이형, 「러브 레플리카」, 문학동네, 2016.

정보라, 「지구생물체는 행복하라」, 래빗홀, 2024.

천선란, 「이끼숲」, 사이언트북스, 2023.

구리하라 야스시, 서영인 역, 「학생에게 임금」, 서유재, 2016.

막스 베버,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문예출판사, 2017.

도나 해리웨이, 황희선 역, 「해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가이 스텐딩, 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박종철출판사, 2014.

김경민, 「신자유주의적 SF와 포스트휴먼 시대의 노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2, 2024.

허윤, 「일할 수 없는 물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52, 2021.

홍석만, 「로봇과 인공지능은 자본주의를 구원할 것인가? - 4차 산업혁명 이데올로기와 노동의 미래-」, 「뉴 래디컬 리뷰」, 87, 2021.

* 슬라이드 배경화면 <https://www.istockphoto.com/kr/%EB%B2%8C%ED%84%B0%EB%A1%9C%EB%B4%87-%EC%BD%AD%EC%82%AC%EC%6C%A7%84-%EB%A7%8C%ED%99%94-gm853147638-140316831>